

충청중국포럼

# 중국동향과 진단



## 이슈와 진단

###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동향

#### 허베이 - 산둥 - 룡산

- 허베이성, 10대 여가형 관광농장 선정
- 허베이성, 중국 농업실리콘밸리 인프라 구축 외
- 산둥성, 지역형 신흥작업농 육성
- 산둥성, 4G 모바일망을 통한 스마트농촌 조성 외

#### '충청중국포럼' 소식

- 제1회 한중3농포럼 개최
- 제4차 충청중국포럼 개최

#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 정책 동향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 ◎ 중국 삼농(三農)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 1. 중국 '삼농(三農)' 문제의 연원과 특색

- 농촌은 도시보다 낙후하고, 농민은 도시주민보다 가난한 상황, 그리고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돌출되는 '3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 분야'의 문제는 중국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단, 중국의 '삼농(三農)'문제 속에는 개혁개방 이전 계획경제체제 시기부터 형성, 심화되어온 '중국 특색'의 연원(淵源)이 있다.

- 가장 뚜렷하게 돌출되고 있는 문제는 '시민(市民)'과 '농민'을 구분하고 있는 호적제도와 집체소유인 농민의 토지사용권(耕作權)에 대한 재산권 행사 상의 제한이다.
- 최근에 중국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신형 도시화', '도농통합발전' 또는 '중국 특색의 도시화의 길'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도 '삼농' 문제 안에 내재된 호적제도와 농민의 토지사용권을 여하히 재산권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될 것이다.

-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정권 출범 초기에는 '사회주의 신중국'의 보통 백성들에게도 혁명의 열정과 공산풍(共產風)의 영향이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 농촌에 대한 인상이 낭만적 색채로 치장된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했다.

- 농촌을 근거지로 삼고 혁명전쟁을 하던 시기에, 중공은 도시는 매국노, 매판자본가, 부패관료의 거주지이고 부패와 타락의 상징인 타도 대상이라 간주했고, 도시에서 지하운동하는 당원들에게 그러한 도시의 분위기에 전염되고 도덕적 타락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교육했다.

- 반면에 농촌은 그러한 도시를 타도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혁명기지이고 사회주의 ‘신중국’의 희망이고 근거지라고 홍보해 왔다. 이는 중공 지도부의 주요 인물 대부분이 농촌 출신이라는 점과도 연관된다.

- 그러나 일제 패망 후 국민당과의 2차 국공내전 기간 중에는 무기 및 군수 생산, 가공, 운수 등 전선 지원을 위한 보급병참기지로서 도시의 역할이 중시되면서, 도시의 지원 없이는 운동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 이에 따라 농촌지구엔 근거지를 두고 유격전 위주로 전개하던 중공의 전략전술이 근본적으로 변했고, 혁명전쟁의 승세가 굳어질 무렵에는 중공 중앙 지휘본부와 각 지방지부 사령부가 농촌 근거지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전했다.
- 특히, 2차 국공내전 기간중 결정적 승기를 잡은 주요 3대 전투, 즉, 랴오닝-선양(辽沈)전투(1948.9.12.~11.2)와 화이하이(淮海) 전투(1948.11.6.~49.1.10), 그리고 베이핑-텐진(平津)전투(1948.12.5.~49.1.31)에서는 보급병참기지로서의 도시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었다.<sup>1)</sup>

#### 이슈와 진단

중국

3농문제의

연원과

관련 정책동향

## 이슈와 진단

중국  
3농문제의  
연원과  
관련 정책동향

- 베이핑-텐진(平津)전투에서 승리한 후, 1949년 3월에 중공 중앙의 5인의 서기(毛泽东, 朱德, 刘少奇, 周恩来, 任弼时)가 중공중앙의 지휘부를 농촌근거지인 허베이성(河北省) 시보포(西伯坡)에서 베이징으로 옮겼다.

- 농촌 근거지에서 투쟁하고 생활하던 중공의 지도자와 간부들이 일터와 거주지를 베이징과 각 지방 중심도시로 이전하고 도시주민이 되면서 이들의 도시에 대한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다.
- 이후 중공 통치 하의 실시된 중화학 공업 육성과 생산성 증대 전략도 국방 우선과 균형발전 전략 추진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도시 우선, 도시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 중공 통치 시기에는, 도시-농촌 이원구조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수천 만인이 농촌으로 ‘하방(下放)’되었고, 다시 도시로 복귀(回城)하는 경험과 기억이 누적되면서 대부분의 ‘신중국’ 국민들에게 도시생활과 도시인, 그리고 농촌생활과 농민에 대한 구분된 인식과 기억이 선명하고 확고한 상식으로 각인되었다.

- 즉, 도시(城市)는 상등 국민의 신분과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을 보장해주는 곳이고, 반면에 농촌과 농민은 그와 대조되는 하등국민이 굶주리고 착취 당하며 사는 장소와 신분을 상징하게 되었다.

- 도시와 농촌에 대한 이 같은 인상은, 농민 희생과 농업잉여를 기초로

1) 랴오닝-선양(辽沈)전투(1948.9.12.~11.2)는 최초로 인민해방군이 국민당 군대보다 수적으로 우세해 지는 분기점이 되었고, 연이어 진행된 화이하이(淮海)전투(1948.11.6.~49.1.10)는 인민해방군 측의 희생도 컸으나 군사요충지인 쉬저우(徐州)와 렌윈강(连云港)을 중심으로 하는 화북지역을 쟁탈했고, 베이핑-텐진(平津)전투(1948.12.5.~49.1.31)에서 텐진과 베이징을 접수하면서 중공이 대륙의 주인으로 결정되었다.

**추진한 도시 공업화 건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구호와 도시청년 실업 문제로 인한 상산하향(上山下乡)<sup>2)</sup>운동, 그리고 농촌인구의 자유이동을 금지한 호적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다.**

- 즉, 도농 이원(二元) 사회구조 속에서 ‘도시호구(城市戶口)’에 부수되어 시민에게만 제공된 배급경제하의 각종 생활 및 복지혜택과 이에 따라 형성된 시민 자격과 신분에 대한 심층 의식형태가 누적된 결과이다.

● **중국의 농민은 수시로 도시의 공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굶주림 속에서도 더 허리띠를 조이고, 국가와 집체에 더 많이 상납할 것을 강요받았다.**

- 단적인 예를 들자면, 대약진운동과 농업을 희생시키며 공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던 소위 ‘3년 곤란시기(1959~61)’에 자연재해와 겹치면서 발생한 대규모 아사자 등 비정상적 사망자의 대부분이 양식을 직접 생산하는 농촌의 농민들이었고, 직접 양식을 생산하지 않는 도시 주민들 중에는 아사자가 거의 없었다.
- 당시에 호적제도는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못하게 막았고, 그 결과 농민들은 속수무책 상태에서 굶주리며 굶어 죽었다.

● **중공은 농민을 기초로 혁명에 성공하여 대륙의 권력을 거머쥐었으나, 혁명 이후 치국(治國) 단계와 국가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농민과 농촌의 희생을 요구해 왔다.**

- 당면한 농민공(農民工)과 삼농(三農)문제의 근본 원인도 중공이 채택하고 고수하고 있는 공업화와 부국강병 정책기조가 도농이원 구조 하에서 농민에 대한 수탈과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지점에 있다.

2) 중공이 대약진과 문화대혁명 시기에 도시의 지식청년들에게 산으로 올라가고(上山), 농촌으로 내려가(下鄉) 농업생산에 종사할 것을 장려한 운동.

## 2. 농민공 문제

- **‘농민공(農民工)’이란 농촌 잉여노동력이 도시로 진입하여, 주로 도시내 건설현장의 잡부나 보조, 유흥업소 종업원 등 비공식부문의 비정규직이나 계절성 노동에 종사하면서 도시내 그늘지대에 거주하며 떠돌고 있는 군체(群體)를 가리킨다. 중국어 언어의 의미로 보면, 농민(農民)과 노동자(工人)의 합성어로 ‘농민노동자(農民工)’란 의미이다.**

- 도농이원구조가 유지된 체로 개혁개방정책이 농촌, 농업에서 도시와 공업으로 확대 추진되면서 도농간 격차가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농촌, 농업, 농민 문제가 돌출, 심화되었다. 이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제가 ‘농민공’ 문제다.
- 2014년말 중국내 농민공 총수는 약 2억 7400만인에 달했다. 2013년 말에는 2억 6900만 명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중부 지구와 서부지구는 각각 9.4%, 3.3% 증가했다. 반면에 동부 연해지구는 0.2% 감소했다.

- **도시호구(城市戶口)와 농촌호구를 분리하는 호적제도는 계획경제체제 하에 식량과 생필품, 복지의 배급을 위한 기초제도로 형성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중공이 식량생산과 공업화 추진을 위한 농업잉여 확보를 위해 농민을 농촌에 잡아 두고 수탈하기 위한 기제(機制)로 작동되어 왔다.**

- 호적제도는 농촌과 도시 간의 인구유동을 제한하는 것 외에, 도시에 각종 혜택을 편향 제공하는 것을 보장했다. 즉, 도시 주민에게만 주택, 식량 및 부식 공급, 교육, 의료, 취업, 보험, 노동보호 등 각 방면의 복지 제공을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다.

●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호적제도는, 농민(農民)과 시민(市民)의 신분을 구분, 고정화하고, 나아가 그 신분을 후대로 까지 세습시키고 있다.

- ‘농민공’이 장기간 도시에 거주한다해도 도시호구를 획득하기는 매우 어렵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농민공’ 자녀들까지도 ‘신생대(新生代) 농민공’이라 불리며 농민공 신분을 이어 받는다.
- 이들은 같은 일을 해도 도시호구를 가진 시민(市民) 노동자보다 보수가 적고, 사회보장 대상자 범위에서도 제외되는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림 1> 농촌에 남겨진 노인과 어린 아이

자료 : 바이두([www.baidu.com](http://www.baidu.com))

● 오히려 ‘농민공’이기 때문에 깔보는 시선과 차별 대우까지 감수해야 하고, 도시민 앞에서 스스로 움츠려 들고, 자신이 (도시민보다) 비천한 신분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인정하게 된다.

## 이슈와 진단

중국

3농문제의

연원과

관련 정책동향



- 이들은 스스로 도시호구를 가진 사람들을 ‘그들 도시사람(他们城里人)’이라 부르고, 자신은 ‘우리 외지농민(我们外地农民)’이라 부른다. 스스로 자신을 도시의 국외자로 여기고, 스스로 자조적으로 “우리는 농민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의사 표현이나 행동에도 소극적이다.
- 노동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는 게 보통이고, 농민공 스스로도 형식적인 노동계약은 필요없다고 말하는 이도 적지 않다.

- **농민공들의 실제 노동시간은 노동법이 규정한 시간을 많이 초과한다.** 상하이의 4개 건설공사장에서 노동하고 있는 농민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년 365일 휴일없이 일하고, 하루 노동시간이 10시간을 넘고, 야간작업도 자주 있다. 이외에도 작업장 안전보장, 임금체불, 보험(의료보험은 물론이고 공상보험 조차) 등의 조건 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

- **소위 ‘신생대(新生代) 농민공’은 농촌에서 중학교(初中)나 고등학교(高中) 졸업후 농촌을 떠난 경우와 1세대 농민공인 부모의 자녀들로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경우를 포함한다.**
- 이들은 부모세대인 ‘전통농민공’과 달리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농촌 생활환경 보다 도시생활환경에 익숙하고, 노동 및 생활환경과 미래에 대한 요구 및 기대수준도 높다.

### 3. 중국정부의 3농문제 대응정책 동향

- **중공 중앙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연속 5년간, 그리고 다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연속 12년간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을 주제로**

하고 농촌개혁과 농업발전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담은 ‘중양 1호문건(中央一号文件)’을 발표하고 있으며, ‘3농’문제가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시기에도 ‘중점중의 중점’지위를 갖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 ‘중양 1호 문건’이란 원래 중공 중앙이 매년 년초에 발표하는 제1호 공문이란 의미이나, 현재는 농촌문제에 대한 중공 중앙의 관심과 중시 정도를 상징하는 고유명사로도 통용되고 있다.

- 중공 중앙은 1982~1986년 연속 5년간, 그리고 2004~2015년 현재까지 연속 12년간 매년 년초에 삼농(三農)을 주제로 ‘중양 1호 문건’을 발표했다. 개혁개방 초기에 발표된 ‘중양 1호문건’에서는 주로 ‘연산승포책임제’의 실시에 따른 사상적 돌파와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2000년대 진입 이후에 발표된 ‘중양 1호 문건’에서는 개혁개방의 확대와 본격적 실시에 따른 도시-농촌 주민 간 소득 및 제반 공공서비스 혜택 상의 격차를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 1982년 1월 1일에 중공 중앙이 발표 하달한 ‘3농문제에 관한 1호문건’에는 농촌 개혁의 신속한 추진에 대한 총결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농호별로 경지를 구분하여 경작하는 방식(包干到戶 또는 大包干)은 모두 ‘사회주의 생산책임제’이고, 합작화 이전의 소사유(小私有) 개체경제(個體經濟)와는 다르고, 사회주의 농업경제의 조성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총결과 해설은 당시까지도 이제 막 시작한 농촌개혁 추진을 독려하고, 보수 좌파의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 1983년 1월에는 ‘당면한 농촌경제정책의 약간의 문제(当前农村经济政策的若干问题)’라는 제목 하에 농가별 생산 연계 도급 책임제인 가정 연산도급책임제(家庭联产承包责任制)의 의미와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 이슈와 진단

중국  
3농문제의  
연원과  
관련 정책동향

즉, 가정연산도급책임제가 “당의 영도하에 중국농민의 위대한 창조이고, 마르크스주의 농업합작화 이론의 중국에서의 실천과정중의 새로운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 1984년 1월 1일에는 ‘1984년 농촌업무에 관한 통지(关于一九八四年农村工作的通知)’ 제목 하에, 가정연산승포책임제의 지속적인 안정과 완비를 강조하고, 토지도급 계약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고, 생산주기가 길거나 개발성 항목은 보다 길게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 1985년 1월에는 ‘농촌경제 진일보 활성화에 관한 10항 정책(关于进一步活跃农村经济的十项政策)’ 제목하에, 30년간 실시해 오던 농부산물 통일적 일괄구매(统购派购) 제도를 취소하고, 양식과 면화 등 중요 농산품에 대해 국가가 계획적으로 합동구매한다는 신정책을 채택했다.
- 1986년 1월 1일에는 ‘1986년 농촌업무에 관한 배치(关于1986年农村工作的部署)’제목 하에, 농촌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동시에 개체경제(个体经济)가 사회주의경제의 필요 및 보충 요소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존재와 발전을 허용했다. 또한, 국민경제 발전은 농업을 기초로 하고, 경제규율과 함께 자연규율도 반영하면서, 장기적인 전략 방침으로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2004년 1월에는 개혁개방 정책이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도시지역과 전국으로 확산된 이래 갈수록 커지는 도농간 격차 문제를 직시하고, ‘농민수입 증가에 관한 약간의 정책적 의견(关于促进农民增加收入若干政策的意见)’이란 제목 하에, 농민의 1인당 평균수입 증가율이 수년간 연속 완만해진 상황에 직면한 주요 양식 생산구와 양식재배 농민에 편향된 정책조치들을 포함했다.
- 2005년 1월에는 ‘농촌업무 강화와 농업종합생산능력 제고에 관한 약간의 정책적 의견(关于进一步加强农村工作提高农业综合生产能力若干政策

的意见)’이란 제목 하에, 각 항 농업지원정책의 안정과 완비 관련내용을 포함했다.

- 2006년 2월에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推进社会主义新农村建设的若干意见)’이라는 제목 하에 도농 경제사회의 통합발전, 현대화 농업건설 추진, 농민소득 증대 촉진, 농촌기초시설 건설 강화, 농촌사회사업 발전 가속화, 농촌개혁 심화 등 8개 방면에서 32개 조의 농업지원, 우대조치를 제출했다. 또한 신농촌 건설 추진은 실제효과를 중시하고, 형식주의를 피하고, 능력에 맞게 행하고, 맹목적으로 높은 기준과 비교하지 말고,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강제 명령하지 말고, 특색을 돌출시키고, 획일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 2007년 1월 29일에는, ‘현대농업 적극발전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건설한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积极发展现代农业扎实推进社会主义新农村建设的若干意见)’이란 제목 하에, 현대농업 발전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임무이고, 현대 물질조건을 이용하여 농업시설을 갖추고, 현대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농업을 개조하고, 현대산업체계를 이용하여 농업을 급을 높이고, 현대경영방식으로 농업을 추진하고, 신형 농민 배양을 통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의 수리화(水利化), 기계화,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토지생산효율, 자원이용율, 그리고 농업노동 생산율과 소질, 효율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 2008년에는 ‘농업기초건설 실질적 강화와 농업발전과 농민수입증대 진일보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切实加强农业基础设施建设进一步促进农业发展农民增收的若干意见)’이란 제목 하에, 다음 8개 부분 주제로 구성되었다. ①농업기초 강화를 위한 장기적 효율적 기제

## 이슈와 진단

중국

3농문제의

연원과

관련 정책동향

구축 가속화, ②주요농산품의 기본공급 실질적 보장, ③농업기초시설 건설 장악, ④농업과학기술과 서비스체계 기본지원 강화, ⑤농촌기본공공 서비스 수준 점진적 제고, ⑥농촌기본경영제도 안정 완비와 농촌개혁 심화, ⑦농촌기층조직 건설 실질적 추진, ⑧당의 ‘삼농(三农)’에 대한 당의 업무지도 강화 및 개선.

- 2009년 2월 1일에는 ‘2009년 농업안정발전과 농민 지속적 수입증대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2009年促进农业稳定发展农民持续增收的若干意见)’이란 제목 하에, ①국내수요 확대의 최대 잠재력은 농촌에 있고, ②경제의 평온하고 비교적 빠른 발전 실현의 기초는 농업에 있고, ③민생 보장과 개선의 중점(重点)과 난점(难点) 모두 농민에게 있다고 제시하고, 구체적 항목으로 ①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강도 증대, ②농업생산 안정발전, ③현대농업물질 지탱(支撑)과 서비스 체계 강화, ④농촌기본경영제도 안정화 완비, ⑤도농 경제사회발전 일체화 추진 관련내용을 포함했다.
- 2010년 ‘중앙 1호문건’은 ‘도농통합발전 강도 증대와 농업농촌발전기초 진일보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加大统筹城乡发展力度进一步夯实农业农村发展基础的若干意见)’이란 제목 하에, 주요 내용으로, ①농업, 농촌, 농민 우대 정책체계를 견실하게 세우고, 농촌을 향한 자원배치 추진, ②현대농업장비 수준 제고와 농업발전방식 전변(转变) 촉진, ③농촌민생 개선 가속화와 도농간 공공사업발전 격차 축소, ④도농 개혁 협조추진과 농업농촌발전활력 증강, ⑤농촌 기층조직 건설 강화와 농촌에서의 당의 집정기초(执政基础) 공고화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 2011년 1월 29일에는 ‘수리개혁 발전 가속화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国务院关于加快水利改革发展的决定)’이란 제목 하에, 중공 정권 출범

이후 62년 이래 중앙문건에서 최초로 수리(水利)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설명과 배치를 했다.

- 2012년 2월 1일에는 ‘농업과학기술 창신과 농산품 공급보장능력 지속적 증강 가속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加快推进农业科技创新持续增强农产品供给保障能力的若干意见)’이란 제목 하에, 농업과학기술 창신(创新) 배치를 강조 및 돌출시키고, 농업과학기술 창신 추진을 ‘삼농(三农)’업무의 중점으로 지정했다.
- 2013년 ‘중앙 1호문건’에는, 도급토지 경작권을 전문적 대농가(专业大户), 가정농장, 농민합작사로 유전(流转)하는 것을 장려 및 지원한다는 방침을 제출했다. 주목할 점은 ‘가정농장’개념이 ‘중앙 1호문건’을 통해 최초로 출현한 점이다.
- 2014년 ‘중앙 1호문건’은 진일보 사상해방, 안정속의 전진 모색(稳中求进), 개혁창신(改革创新), 체제 및 기제(机制) 폐단 결연히 타파, 농업 기초지위 견지, 농업현대화 가속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 2015년 ‘중앙 1호문건’의 제목은 ‘개혁 창신 강도 강화와 농업 현대화 건설 가속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加大改革创新力度加快农业现代化建设的若干意见)’이었다. 주요 내용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신상태(新常态: New Normal)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제를 제시했다.

- **이제까지 중공 중앙이 삼농을 주제로 발표한 17개의 ‘중앙 1호문건’중 개혁개방 초기인 1982~1986년 기간 중 발표한 5개 문건의 주제는 주로 농촌개혁의 돌파구로 실시한 ‘연산승포책임제’의 이론적 위상을 확보하면서 동요없이 추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2000년대 진입 이후에는, 갈수록 확대되는 도농간 격차 완화와 농민소득 증대방안 모색을**

## 이슈와 진단

중국  
3농문제의  
연원과  
관련 정책동향

강조했다. 즉,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농업 현대화, 도농통합발전, 농업 과학기술 창신과 농촌집체소유토지의 도급사용권(경작권)의 양도(流轉) 허용을 통한 전문적 대농가 및 농업합작사 육성, 신상태(新狀態: New Normal)와 농업 현대화 등을 강조했다.

- 한편, 도농 이원제 호적제도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사회,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중국정부는 각급 지방정부와 도시 정부가 도농 이원제 호적제도를 자주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최근에, 허베이, 랴오닝, 산둥, 광시, 충칭(重慶) 등 12개 성(자치구, 직할시)급 지방정부가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 이원제 호구성격 구분을 취소하고, 도시와 농촌의 호구등기제도를 통일하여 ‘거민호구(居民戶口)’라 통칭하고 있다.
- 이외에 베이징과 상하이 등 농업인구를 비농업인구로 전환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의견을 하달하고, 제한조건을 완화했고, 광둥성의 포산(佛山), 선전, 중산 등지에서는 도시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농촌지구의 주민을 비농업 호구로 전환해 주고 있다.

- 도시정부 입장에서는 도시 노동자들이 꺼리고 기피하는 일을 저임 노동력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농민의 도시 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심지어는 통로나 구멍을 열어 두기도 한다.

- 농민공들이 도시로 가서 벌어오는 돈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농민의 도시로의 유출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농촌지방정부의 입장도 있다.

- 한편, 농촌토지 집체소유제 하에서 농촌토지 유전(流轉)문제가 공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추세 속에서 농업과 비농업 부문간의 산출가치 차이 증대로 인한 지대(地代) 증가분에 대한 처리문제와 함께 돌출되고 있다.

- 즉, 이러한 지대(地代) 증가분을 여하히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와 동시에 그 과정에서 (특히 도농 결합부에서) 농민의 토지사용권을 핵심으로 하는 농민의 재산권적 권익을 어떻게 보장하고 보호해 줄 것인가? 라는 문제가 핵심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4. 지방정부의 ‘삼농’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

- 중공과 중국 국무원이 이 같이 중시하는 3농문제를 지방정부 정책차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허베이성과 산둥성 정부의 2015년 정부공작보고에 담긴 3농관련 주요 내용과 지난 9월 14일 충남연에서 개최된 ‘한중 3농포럼’에서 발표된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삼농문제 현황과 대응정책 동향을 정리했다.

이슈와 진단  
중국  
3농문제의  
연원과  
관련 정책동향

##### 1) 2015년 허베이성 정부공작보고 내용중 3농관련 주요 내용

- ‘삼농(三農)’문제의 양호한 해결에 공작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점을 두고 움켜쥐고 나간다.
- 양식 안정과 수확 증대, 질과 효율 증대, 창신(創新) 촉진의 총요구에 따라, 농업발전방식의 전변(转变)을 가속화하고, 농업농촌경제의 발전형세를 양호하게 굳힌다.
- 양식생산 핵심구 건설을 계속 움켜쥐고, 양식생산능력 신규증대 공정과 ‘보하이 양식창고(渤海粮仓)’과학기술시범공정 추진을 통해 양식생산을 안정화 한다.



- 농지(农田) 수리(水利)를 중점으로 농업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물, 비료, 농약 절약(节水节肥节药)을 위한 장려와 규제기제를 완비하고, 경지의 질량 보호와 승급행동을 실시한다.
- 농지(农田) 절수(节水) 관개면적 400만무(亩)를 신규 증가 및 개선하고, 농업 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한다.

- **현대농업을 발전시킨다. 현대 농업원구(农业园区) 건설을 강화하고, 종양(种养) 구조를 조정 특화하고, 농업의 규모화와 표준화, 청정생산을 추진하고, 100개의 성(省)급 현대 야채산업원단지, 30개 중앙부급(部级) 표준원(标准园), 그리고 200만 무(亩)의 우세과일기지를 신규 건설하고, 50개 분유용 젖소 목장과 비육소 양식장 건설목표를 달성한다.**

- **농업 과학기술 진보를 가속화하고, 우량품종과 선진기술을 도입·보급하고, 특색 브랜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산품의 질량 안전수준을 제고 한다.**

- 농업산업화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일련의 식품공업기지와 농업선도기업(农业龙头企业)을 건설하고, 100개의 1억 위안(元) 이상 농업항목 투자와 준공 생산을 완성하고, 농업산업화 경영률을 65.5% 이상 도달케하고, 농민수입 증대를 촉진한다.

- **농산품의 생산과 판매 연결을 강화하고, 농민 농업수입을 제고시킨다.**

- 농촌의 2차, 3차산업 전형승급(转型升级)과 농민창업을 추진하고, 농민 농업 수입을 증대시킨다.
- 농민의 재산수입과 전이성(转移性)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한다.

● **농촌개혁 심화. 토지도급경영권 권리확정등기를 양호하게 추진하고, 농촌재산권 거래시장을 건립한다.**

- 토지경영권의 순차적 유전(流转)을 인도 및 규범화하고, 다양한 종류와 형식의 적정규모(适度规模) 경영을 발전시키고, 각 유형의 신흥농업경영주체를 배양 육성한다.
- 농업 보조지침을 완비하고, 경지보호보상, 생태효익보상, 양식생산구 이익보상 등 보상기제(補償机制)를 완비하고, 금융의 농업지원 서비스 강도를 강화한다.

● **공급판매사(供销社) 종합개혁을 추진하고, 신흥 농업사회화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 **주민거주환경을 개선한다. 농촌면모 개조 및 승급(昇級)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총리(崇礼)현, 바이양디엔(白洋淀)현, 랑팡 북부3현(廊坊北三县), 정딩(正定)현 등 9개 지구(片区)를 중점으로 하여, 3000개 촌(村)을 개조 승급하고, 지역과 문화특색을 돌출시키고, 연이어 아름다운 농촌(美丽乡村)을 건설한다.**

**이슈와 진단**

중국  
3농문제의  
연원과  
관련 정책동향

## 2) 2015년 산둥성 정부공작보고 내용 중 3농 관련 주요 내용

### ● 전성(全省) 농촌토지 도급경영권의 권리확정 등기증서 교부 업무를 기본적으로 완성한다.

- 농호(农户)의 도급토지경영권의 유전(流转), 저당, 담보 등 방법을 탐색하고, 농업의 적절한 규모경영을 추동한다.

### ● 농민합작사를 규범화 발전시키고, 가정농장기본표준과 공업 및 상업 자본의 농업진입 감독관리방법을 제정한다.

### ● 농촌집체경제조직 재산권제도 개혁 시범지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종합적 재산권 거래시장 발전방안을 탐색한다.

### ● 공급판매합작사(供销社) 개혁을 진일보 심화한다.

- 도농일체화 노선을 적극 탐색하고, 재정전이지불(财政转移支付) 제도를 점진적으로 건립하고, 용지증가규모와 농업전이인구의 시민화를 연결하는 기제를 건립한다.
- 인구, 경제, 그리고 비농업 취업이 진(镇) 또는 도시 표준에 도달한 지구는 점진적으로 도시화 관리를 시행하고 상응한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향진(乡镇)을 도시 기층행정단위인 가도(街道)로 바꾸고, 현을 철폐하고 시를 설치한다.
- ‘100개 진(镇) 건설시범행동’을 심도있게 전개하고, 농촌 신형사구(新型社区) 건설을 장악하고, 농촌주민거주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 3) 헤이룽장성 3농분야의 문제와 대응정책

#### ◎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삼농 및 농촌분야의 주요 과제

- **농촌의 생태환경 파손이 심각하고, 더구나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이고, 가뭄, 홍수, 우박(風雹) 등 재해와 저온, 냉해, 모래먼지폭풍(沙塵暴), 이른서리(早霜), 그리고 흑토유실(黑土流失), 생물재해 등 각종 자연 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 ● **조방형 경제성장방식에 따른 자원이용의 부족과 낭비가 심각하다.**

- 고(高)투입, 고소모, 고오염, 저효율 조방형 경제성장방식을 형성하고 있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주요 에너지 동력이다. 이중 석탄에너지 소모 점유비율이 70% 정도로, 약 7000만 톤 표준석탄(標準煤) 에너지 소모로 탄소배출의 주요 에너지 소모지점으로 대량의 탄소기체(碳氣體)를 배출했다.
- 농촌경제중 공업이 약 50%내외를 점유하고 있고, 또한 에너지, 원재료, 기계제조 등 중화학공업 산업이 전체 공업의 약 80% 이상을 점하고 있다.

#### ● **농촌의 난방, 전기사용, 건축, 분뇨, 경작(耕種) 등 활동에서 대량의 탄소를 방출하고, 오염시키고 있다.**

- 농촌주택난방용으로 대량의 농작물 줄기를 태우고 있다.
- 전력의 석탄발전 의존률이 약 80%이고, 2020년에는 농촌지구 1인당 표준석탄(標準煤) 소모량이 0.62톤에서 1.99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슈와 진단**  
중국  
3농문제의  
연원과  
관련 정책동향

- 농촌의 양식, 분뇨, 농약, 화학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온 상승, 탄소배출 증가, 삼림자원 및 해양환경의 오염 등.

● **농업구조가 종식업(种植业) 위주이고, 목축업 발전이 미흡하다.**

- 2012년 헤이룽장성 녹색식품 파종면적이 6720만 무(亩)로 전년대비 4.7% 증가했고, 중국 전국의 20%를 점했다. 반면에 목축업 발전은 상대적으로 느리다.
- 헤이룽장성은 중국 전국에서 대초원을 보유한 10개 성(省)중 하나이고, 초원이 전성 토지총면적의 11.2%를 점하고, 거대한 목축업 발전 우세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향후 10년간 중국의 1인당 육류소비량 증가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헤이룽장성 목축업의 발전공간은 매우 크다.

● **도농(城乡) 교육수준 질의 차이가 매우 크고, 농촌 노동력 취업과 재취업 교육훈련기구, 그리고 운영기제가 부족하거나 없고, 도시에 진입한 농민 공의 문화수준과 노동기능 소질이 낮다.**

● **아직도 많은 농촌 진흙초가 불량주택이 개조를 기다리고 있고, 게다가 이들 진흙초가 불량주택 대부분이 모두 외진 산촌지구(山区)에 있어서, 주변지구와 교통이 불편하고 막혀 있다.**

◎ **헤이룽장성 삼농문제 대응정책**

● **저탄소산업 발전을 장려 및 지원하고 있다.**

- 대기중에 이산화탄소(CO2)를 방출하거나 발전과정 중 기타 물질이

이산화탄소 기체 성분으로 전화되는 탄원산업(碳源产业)을 공기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주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환경 발전에 유리한 탄소흡수산업(碳汇产业)으로 바꾸어 나간다.

- 탄원산업(碳源产业) 업종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채굴 및 에너지 가공 업종 및 발전, 정유, 코크스, 석탄가스(煤制气), 석탄선광(煤炭洗选), 석탄가공에너지소비 전환 등이다.
- 탄원산업(碳源产业)은 농업, 공업, 교통, 건축, 상업, 민용 생물질 에너지 연소(民用生物质能燃烧), 공업생산시멘트, 석회, 카바이드(电石), 철강 업종 등을 포함한다.

● **‘헤이룽장성 농촌거주환경개선 실시의견(黑龍江省改善农村人居环境实施意见)’을 심도있게 관철하고, ‘100촌 시범, 1000촌 기준달성’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시,현의 시범촌과 기준달성촌(达标村) 건설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 주택, 도로, 물, 전기, 통신 등 시설건설과 쓰레기, 오폐수, 축산분뇨 등 오염처리를 강화하고, 마을(村庄)의 물리환경(硬化), 녹화, 야간조명(亮化) 건설수준을 제고하여, 기초시설이 완비되고, 환경이 양호하게 정비되고, 생태보호가 우량하고, 품모와 특색이 선명하고 거주에 적합한 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동시에, 쓰레기 처리, 전환 운반 역(站)과 상응한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촌(村)이 수집, 향(乡)이 운반, 현(县)이 처리하는”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양식생산 위주의 종식업(种植业) 구조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지방 특색과 시장이 있는 농업경제작물을 개발한다. 또한 현지 주요 저탄소형**

**이슈와 진단**

중국  
3농문제의  
연원과  
관련 정책동향

**농축가공기업이 선도기업(龙头企业)으로 대동(带动) 작용을 발휘토록 한다.**

- 저탄소경제 배경 하에 종식업과 양식업의 양호한 발전을 추진하고, 저탄소형 농축산업 발전을 주공격 방향으로 한다.

● **농민에 대한 문화교육, 문명교육을 강화하고, 농민의 종합소질을 제고 한다.**

- 농민에 대한 다양한 기능 훈련연수를 강화하고, 농민이 다양한 취업 기능을 장악하게 하고, 도시에서 자신의 노동기능에 의지하여 장기적 안정적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헤이룽장성은 중국에서 전통 계획경제체제 지속시간이 가장 길고, 가장 철저하게 관철한 지구여서 사람들의 계획경제로부터 받은 영향이 깊고, 도시평균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폐쇄주의가 극도로 심각하다.

● **농촌 불량주택 개조에 대한 보조 강도를 더욱 강화하고, 다방면, 다층차(多層次)의 자금확보 통로를 건립하고, 전사회적 역량을 동원한다.**

- ‘아름다운 농촌(美丽乡村)’ 건설에 투자하는 자에게 자금지원과 세금면제 등 특혜정책을 제공한다.

● **농업현대화 실현의 우선적 필요조건인 농업 규모화 경영을 실행한다.**

- 농촌토지 유전(流转)에 대한 법률제도를 건립 완비하고, 토지를 선도기업(龙头企业), 식량재배 대농호(种粮大户), 현대가정농장 등 새로운 경영주체에 집중시키고, 또한 주식합작제를 채택하여, 농호(农户)가 도급한 토지를 나누는 방식으로 주식 지분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농촌 잉여

노동력이 도시진입후 토지수익을 창업자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장려한다.

- 농업규모화 경영을 점진적으로 추동, 실현하면서 농촌잉여노동력의 도시이전을 촉진하고, 농민의 시민화(市民化)를 추진한다.

## 5.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3농'교류협력 추진 의의와 방향

- **지난 9월 14일(월) 오후에 공주시에 위치한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과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평지엔창(彭建强) 부원장, 그리고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주위(朱宇)원장이 각 연구기관을 대표해 향후 3자간 학술연구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협약(MOU)을 체결했고, 이어서 한중 양국의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주제로 제 1회 '한중 3농 포럼'을 개최했다.**

- 중국 측 발표자의 주제는, 허베이성 사회과학원의 탕빙위안(唐丙元) 연구원이 '허베이성 낙농업발전과 지원정책'이란 제목으로,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의 청야오(程遥)연구원이 '헤이룽장성 3농발전문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이어서 9월 15일(화)에는 충청남도가 주관·주최한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에도 참석하여,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평지엔창(彭建强) 부원장이 '지방정부 지원 현대농업발전 사례 분석'이란 제목으로, 그리고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류샤오닝(劉小寧)연구원이 '헤이룽장성 농업 국제화를 통한 농업현대화 추진'이란 제목의 발표를 했다.

이슈와 진단  
중국  
3농문제의  
연원과  
관련 정책동향



## 이슈와 진단

중국  
3농문제의  
연원과  
관련 정책동향

- 이번 ‘한중 삼농포럼’에 참석한 중국 측의 허베이성 사회과학원과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은 충칭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중국의 2개 성(허베이성과 헤이룽장성) 정부의 싱크탱크이다. 따라서, 이번 3개 연구기관 간 교류협약 체결과 ‘한중 삼농포럼’ 개최를 통해서, 향후 3자간에 지방차원의 ‘삼농’문제를 연결고리로 학술 및 정책경험과 연구 교류를 진행하면서, 단계적으로 관광, 환경, 지역개발 분야로, 그리고 기업 및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으로 교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구축했다.

- ‘3농’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정책은 중국정부와 충칭남도 모두가 중시하는 문제이므로, 지방차원의 한중 교류를 ‘3농’ 문제를 연결고리로 3자간 관련정책 경험에 대한 학술교류를 진행하면서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충칭남도는 안희정지사 취임 이래 ‘3농혁신’을 주요 도정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고,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인 1982~1986년까지 연속 5년간, 그리고 후진 타오(胡锦涛) 집권 시기인 2004~2015년까지 연속 12년간에 걸쳐서 매년 년초에 발표·하달하는 ‘중공중앙 제1호 문건’의 주제를 모두 ‘3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관련 주제로 발표했을 정도로 ‘3농(三農)’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 따라서 충칭남도와 15개 시군이 대(對)중국 교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연결고리로 3농 관련 성공정책경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를 기초로 중국의 교류 파트너 성, 시현 지역과 관광, 통상, 투자유치 방면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충남연이 조직하여 매월 개최하고 있는 ‘충청중국포럼’ 활동을 확대하여, 우선 년 1회 정도 중국측 교류파트너 성, 시현을 공무원과 사업단위 및 국유기업

간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삼농(三農) 및 농촌체험관광, 농어업 6차 산업화,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성공사례를 컨텐츠로 하는 ‘한중포럼(가칭)’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이를 정책연수관광상품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면서 지방차원의 한중 교류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전략적 대응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 및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자료

1. 박인성. 2014. 중국 특색 농촌문제의 연원과 신형 도시화, 「성균차이나브리프」통권 32호. 139~145쪽.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 박인성. 2013. 중국 쓰촨성 청두시의 도농통합정책 실험, 「지역과 발전」 2013. 11. 지역발전위원회
3. 박인성. 2009.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 한울아카데미
4. 청야오(程遙). 2015. 헤이룽장성 삼농발전 문제, 「제1회 한중 3농 포럼」자료집, 충남연구원
5. 충청남도. 2015.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三農 Forum」자료집
6. 陈映芳. 2012. 「城市中國的逻辑」, 上海: 三联书店
7. 张宗益主编. 2011. 「重庆统筹城乡发展实践」, 重庆: 重庆大学出版社
8. <http://baike.baidu.com/subview/1391355/19008501.htm>: 中央一号文件(中共中央重视农村问题的专有名词)

이슈와 진단  
중국  
3농문제의  
연원과  
관련 정책동향

# 허베이- 산동통신 (河北-山东通讯)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 허베이-산동통신

- 허베이통신 — 10대 여가형 관광농장 선정
- 허베이통신 — 중국 농업실리콘밸리 조성 추진
- 허베이통신 — 농촌 재래식 화장실 개조 추진
- 산동통신 — 지역형신흥직업농 육성
- 산동통신 — 러링시, 농업생산의 과학화, 규모화, 고급화 추진
- 산동통신 — 인민정부, 업무체계 간소화 추진
- 산동통신 — 4G 모바일 망을 통한 스마트농촌 조성

## ◎ 허베이성, 10대 여가형관광농장 선정

■ 지난 9월 15일 허베이성 농업청이 ‘허베이성 10대 현대 여가형농촌건설 활동에 관한 통지(河北省10大现代休闲农业园区创建活动的通知)’를 발표하면서, 각 급 행정기관 및 지역사회의 평가과정을 거쳐 성 관할 구역 내 각 지역 총 10 곳의 여가형 관광농장을 선정했으며, 고품질의 여가형 관광농장인 이들 농장에 조경, 생태환경관리, 관광경영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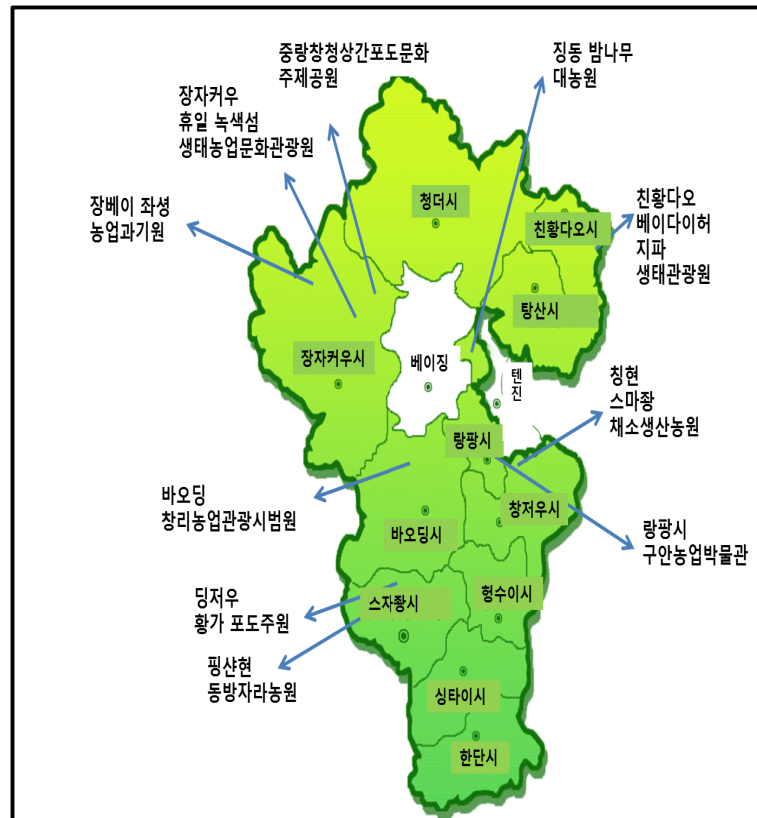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 ‘징둥 밤나무 대농원(京东板栗大观园)’, ‘친황다오베이다이허 지파 생태관광원(秦皇岛北戴河集发 生态观光园)’, ‘칭현 스마좡채소생산농원(青县 司马庄 菜蔬生产农园)’, ‘순화현 휴일녹색섬 생태농업문화여행관광원(宣化县 假日绿岛生态农业文化旅游观光园)’, ‘장베이 좌성 농업과기원(张北佳圣农业科技园)’, ‘딩저우시 황가 포도주원(定州市 黄家 葡萄酒园)’, ‘중량창 청상간포도문화 주체공원(中粮长城桑干葡萄酒文化主题公园)’, ‘링팡시 구안 농업 박물관(廊坊市 固安 农博园)’, ‘바오딩 창리 농업관광시범원(保定 唱利农业旅游示范)’, ‘핑산현동방자라농원(平山东方巨龟苑)’ 등이다.
- 이는, 징진지일체화발전정책의 일환으로서, 베이징으로부터 1시간 거리 안에 채소공급농장을, 2시간 거리 안에 여가형관광농장을, 3시간 거리 안에 긴급식량공급농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 허베이- 산둥통신

허베이성  
10대 여가형  
관광농장 선정

## 허베이- 산동통신

허베이성  
10대 여가형  
관광농장 선정



<그림 1> 허베이성 10대 여가형 관광농장 분포도

■ 한편, 허베이성 농업청은 최근 ‘여가형 농업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休闲农业的意见)’에서, 2017년까지 100여개의 여가형농장을 건설하고, 이들을 농업, 농촌, 농사의 특색을 살린 고품격 관광농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허베이성 농업청은 10대 현대 여가형 농장 창건 활동을 진행하면서, 3농 융합활동을 강화하고,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농업의 산업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경영, 관리, 생산, 서비스의 수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허베이성의 여가형관광농장의 방문객을 연간 1억 명, 연 수익을 200억 위안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 ◎ 허베이성, '중국농업실리콘밸리' 인프라 구축 추진

■ 허베이성 저저우시(涿州市)가 향후, 현대농업과학기술의 이점을 활용하여, 세계 일류의 농업실리콘밸리로 조성된다.

- 지난 9월 26일, 허베이성 랑팡시(廊坊市)에서, 중국농업 첨단기술산업발전 고위급회담 및 농업선도 기업의 허베이성 진출기념행사가 허베이성 인민정부, 중국농업대학이 주관하고, 허베이성 발전개혁위원회, 농업청, 과학기술청, 바오딩시(保定市) 인민정부, 저저우시 인민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이 자리에는 농업 관련 저명학자 및 농업선도기업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농업기술에 대한 교류활동 또한 진행되었는데, '농업기술관련 전문가 풀'을 조직하고, 4인의 전문가에게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 또한, 당일 중국농업과학원 부원장, 중국수산기술원 원장, 베이징대학기술연구개발원원장, '싼촨(三泉)그룹' 사장, 전국공상연합농업사업상회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징진지(京津冀)협동발전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허베이의 농업기술의 이점을 활용하고, 농업산업발전방식의 혁신을 통하여, 저저우시(涿州市)를 '국가농업첨단과학기술산업시범구'로 조성하고, 징진지 협동발전의 배경 하에서 과학기술농업발전의 추세와 미래상에 대한 전문 학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 이 밖에 저저우국가농업과학기술산업시범구의 발전을 위한 첨단농업의 구체적 항목에 대한 관련 부분 지도자들과 전문가 및 농업선도 기업들 간의 협의가 진행되었다.

### 허베이- 산동통신

허베이성  
중국 농업  
실리콘밸리  
인프라 구축  
추진

## 허베이- 산동통신

허베이성  
중국농업  
실리콘밸리  
인프라 구축



<그림 1> 2015년 중국 농업과학기술산업발전 고위급회담

■ 한편, 고위급회담 및 관련 행사에 참석한 저저우시 시장은 향후 저저우시가 적극적으로 계획의 완결성을 높이고, 산업의 기초 역량을 튼튼히 다져서,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의 구체화에 힘씀으로서, 저저우시를 향후, 베이징 남부지역의 중요 결절지역이자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즉, 베이징의 비수도기능을 저저우시로 적극 이전하고, 수도 첨단산업의 이전과 과학기술 성과의 승계지, 신형도시화 및 도농복합발전의 시범지, 국가농업첨단기술산업시범구로서의 저저우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실제, 최근, 중국농업과학기술원, 농업부 관련 연구기관, 중국농업대학, 베이징대학 농학원 등 일련의 연구기관들이 저저우로 이전하고, ‘혜요우싼싱(惠友三兴)’, ‘루위엔농업(绿原农业)’, ‘바이룽그룹(百荣集团)’ 등 18개의 농업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 또한, 중국농업대학 저저우 과학기술원의 경우, 2만1,600무(亩)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큰 실험실습기지이기도 하다.

■ 또한, 저저우시는 저저우국가농업과학기술산업 시범구 건설 및 세계일류의 농업실리콘밸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구체적 실천 조치들을 단행하기로 했다.

- 1) 국가급현대농업산업시범구 건설 : 과학기술혁신인재 및 농업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2, 3차 산업과 연계된 농업부문의 산업연계망을 강화하고, 식품가공산업과 생물산업, 농림휴양여행업 및 농업 금융, 농업관련 박람회 등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 2) 국제현대농업혁신 전시관 조성 :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의 촉진, 교육훈련 및 국제교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적 플랫폼을 구축한다.
- 3) 중국농업과학기술 전원 신도시 건설 : 현대농업 및 관련산업 기능, 베이징으로부터 연계되는 과학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 관련 서비스업, 자연친화적 거주환경의 조성을 위해 신도시를 건설한다.

**허베이-  
산둥통신**

허베이성  
중국 농업  
실리콘밸리  
인프라 구축



## ◎ 허베이성, 재래식 화장실 개조 추진

■ 허베이성은 2014년 말까지 농촌 무해화화장실 보급률을 50%까지 달성하며, 재이용기간을 3-5년 수준으로 확장하여 성 전체 지역의 농촌 지역에 화장실의 무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2013년부터 허베이성이 ‘아름다운 향촌건설 활동(美丽的乡村建设活动)’을 진행해오면서, 시범적으로 불량화장실을 개조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초 허베이성에는 103만 곳의 모기출현 화장실과 1,000만 곳의 건식 화장실이 있는데, 이를 개조함으로써 200만 여명의 농민이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3만 4천 여 명의 촌 주재(驻在) 간부들이 농촌 화장실 개조의 전망, 착공 방안, 지원정책의 세부항목과 과학적 관리 방식 등을 촌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그림 1> 개조 전(좌)과 후(우)의 화장실

■ 허베이성은 평원, 산지, 고원, 연해 등 다양한 지리적 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지의 농촌 화장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 농촌 화장실 개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관건 문제도 재정이다. 2014년 각 급 정부에서 총 14.8억 위안이 투입되었으며, 개조사업에 대해 적극성을 보인 촌장에 대해서는 총 1.5억 위안의 성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다. '3중 구조화 분뇨처리시설'을 갖춘 화장실의 건설 보조금 표준은 각 촌장의 적극성에 따라 400위안에서 1,100위안 사이로 차등적인데, 현의 재정 보조금은 1,700만 위안이다.

■ 한편, 개조 이후의 화장실 청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 주도, 시장주도형 기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 지방에 따라 액화분뇨채취 및 화장실시설 관리단을 구성하고, 유기비료공장과 연합하여 분뇨액화처리효율, 유기비료를 생산하거나 또는 민간 회사의 투자를 도입하고 그 운영관리를 위탁할 계획이다.

허베이-  
산동통신

산동성,  
지역형 신형  
직업농 양성

## ◎ 산동성, 지역형 신형 직업농 양성

■ 산동성 정부가 현재 '취업우선전략행동방안'을 제출한 가운데, 향후 매년 10만 명의 첨단기술 및 경영관리형 지역 직업농민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취업우선전략행동방안(就业率先战略行动方案)'에 따르면, 산동성 정부는 향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창업혁신형 교육과정과 창업 촉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의 창업혁신의식과 창업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 2015년 연말까지 각 시에 최소한 1개의 창업관련대학과정을 설치하며,

## 허베이- 산동통신

산동성  
지역형  
신형 직업농  
양성

2016년부터 창업훈련 업무를 완전히 대학기관에 위임하고, 훈련 후 창업 활동에의 참가비율을 최소한 90%, 창업성공율을 최소한 20% 확보를 목표로 한다.

- 또한, 장차 농민의 직업훈련 과정에 취업연수기능을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 5개년 계획’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직업농 인증제도의 실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직업농민의 특성에 알맞은 전문직업 코드를 설치하고, 매년 10만 명 이상의 신형 직업농민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림 1> 산동성 린이시 농업생산 연수 과정

- 실제로, 린이시(临沂市) 농·광업학교의 경우, 멩인현(蒙阴县)의 표고 버섯 농가에 대한 현지지도 활동에 돌입했으며, 기업과 농업생산 지도기지, 각 농가가 결합된 형태의 농업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기술 훈련뿐만 아니라 시장상황에 따른 마케팅과 농산물 가공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 산둥성, 러링시(乐陵市) 농업생산의 규모화, 과학화, 고급화 추진

■ 산둥성 더저우시(德州市)의 현급시인 러링시(乐陵市)<sup>3)</sup>가 현재 선진적 농업 경영방식과 현대화된 과학기술의 도입을 통해 황하삼각주 지역의 19개 현·시·구 중 5년 연속 재정수입 1위를 달성했다.

- 더저우시(德州市)는 산둥 북부지구(鲁北地区)의 전형적인 농업도시로서 곡물 생산으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재정수입이 부족한 지역이었다.
- 그러나 파종과 양식 등의 규모화를 실현하고, 비료배합 및 농산물 부산품 회수시설의 과학화, 농산품의 고급화 등 농업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 휴경지에 대한 제도적 위탁 관리제의 도입

- 더저우 시 청년층 대다수가 대도시 지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 개별 농가 단위에서의 농지경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러링시의 경우, 적극적으로 ‘토지대리관리합작사(土地代管合作社)’제도의 도입을 통해 농지의 규모화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위탁관리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경영권 및 수확물에 대한 소유권은 농민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토지대리관리합작사에 위탁관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러링시 푸종합작사(富众合作社) 왕타오지에(王挑杰) 사장(社长)에 따르면, 농민 개인이 토지 1무를 매년 경작하는데 최소한 1,000위안의 경비가 필요한 데 반해, 합작사를 이용할 경우, 경작비용을 최소 10%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허베이- 산둥통신

산둥성 러링시  
농업생산  
규모화,  
과학화,  
고급화 추진

3) 중국은 성-지급시-현급시의 행정체계를 지니고 있다. 가령, 더저우시의 행정구역은 직할시 구역 내의 구와 여러 현급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산동성 인민정부, 정부업무체계 간소화 추진

■ 지난 7월 23일, 산동성 인민정부가 '2015년 정부권한 이양과 결합된 정부업무체계 개편추진방안에 비준함에 따라, 1) 행정심사부문, 2) 투자 심사부문, 3) 직업 관련 자격증 관리 부문, 4) 행정비용징수 부문, 5) 상공업 영업허가 관련 부문, 6)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관련 부문, 7) 행정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부문의 7가지 측면에서의 행정체계 간소화가 산동성 및 각 산하 시정부에서 추진된다.

- 중국 공산당의 전면심화개혁 및 정부 직렬 체계에 대한 개편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배경 하에, 국무원의 '2015년 정부권한 이양과 결합된 정부업무체계 개편 추진방안통지(国务院关于印发2015年推进简政放权放管结合转变政府职能工作方案的通知)'의 정책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산동성 차원에서의 구체적 실시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 경제사회발전에 부적합한 행정심사 사항을 폐기하고, 비행정허가심사항목을 취소하고, 투자심사 비준을 대폭 간소화하는 이른바, '삼정합일(三证合一)'을 실현함으로써, 정부의 행정효율을 향상하고, 관리감독서비스의 최적화를 실시해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한편, 산동성 인민정부는 상술한 개혁조치들을 단행하기 위해, 정부업무기능개편전담팀(政府职能转变领导小组)을 설치하고, 각 정부 부문 고유의 업무방식에 대한 개편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행정심사부문 개혁 방안

- 각 급 부문의 비행정허가비준항목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2015년 말까지 비(非)행정허가비준관련 성 정부의 권한을 시·현급정부에 이양시킨다.

- 감독 권한의 집행을 법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행정심사의 비준 과정을 표준화하고, 투명화한다.
- 정부 각 부문별로 나누어져 있는 행정심사 신청을 성 정부 산하의 기구로 단일한 창구를 마련한다.
- 행정심사 중개서비스를 규범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 ■ 투자심사부문 개혁 방안

- 국가의 기업 투자프로젝트 핵심목록의 변화 상황에 따라, 산동성 차원에서도 기업 투자프로젝트 시행절차의 핵심적 문제로 거론되어온 강제성 중개서비스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 인터넷을 통한 기업 투자프로젝트 심사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성(省) 내 관련 정부부문에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한다.
- 투자관리방식 혁신에 대해, 정부 각 부문이 협력적으로 관리감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특히, '기술과 제도'의 공동발전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유관 부문이 함께 정보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 직업 관련 자격증 관리 부문 개혁 방안

- 2015년 말까지 산동성 각 부문의 직업자격허가인정 업무 개선을 마무리한다.
- 각 부문이 스스로 설치한 직업자격 및 관련 수속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국가의 직업자격목록관리 제도를 성 차원에서 정착시키도록 한다.
- 직업기능인증에 대한 온라인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가 제정한 산업부문별 직능기준이 각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허베이-  
산동통신

산동성  
인민정부  
정부업무체계  
간소화 추진

## 허베이- 산동통신

산동성  
인민정부  
정부업무체계  
간소화 추진

### ■ 행정비용징수 부문

- 편법적으로 설치된 행정비용징수 기금을 취소한다. 행정비준심사중개서비스 비용을 규범화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서비스 신청 중개비용은 모두 취소하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실시한다.

### ■ 상공업 영업허가 관련 부문

- 상공업 영업허가, 조직기구코드, 세무등기증을 하나로 통합하는 삼증합일(三證合一)제도를 연내에 추진해서, 한 영업장에 통합된 하나의 코드만을 부여하도록 한다.
- 우선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고, 사후적으로 유관 허가증을 받는 제도(先照后证)를 개편하여 상공업영업등기 신청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시행한다.
- 자유무역구에서 실시되었던 외자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비준제도 개혁의 경험에 비추어, 비(非)자유무역구에서도 외국계기업에 대한 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 중소기업 목록을 작성해서, 중소기업이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한다.

### ■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관련 부문

-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진보 추세에 맞추어, 대중적인 창업과 혁신을 위한 공공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과학, 문화, 위생영역에서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양호한 혁신환경을 조성한다.
- 각 사업 부문에 대한 행정비준사항들을 대폭 철폐 및 간소화하고,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관련 부문에 적합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 ■ 행정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부문

- 국내외 각지의 경험을 토대로 관리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모색해서, 각 산업부문별로 시장주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 ‘선 영업허가 후 유관허가증 발급 제도(先照后证)’개선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발전개혁, 경제화 및 정보화, 공안, 국토자원, 주택도시 건설, 교통운수, 농업, 해양수산, 임업, 환경보호, 언론출판, 공상, 식품 의약품 감독, 관광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 통일적인 종합관리감독 시스템과 사회신용정보체계를 구축한다.
- 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시민대중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와 시장 주도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 산동성, 4G 모바일 망을 통한 스마트 농촌의 조성

- 2015년 9월 말 현재까지, 산동성 전역의 5만개 마을의 750만 농촌가구에 4G 모바일망이 보급되었고, 연말까지 산동성 내 모든 농촌 마을에 대한 모바일 인프라의 구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 이는 ‘황토를 마주하고, 하늘을 등에 지고 시작한다(面朝黄土被朝天)’는 중국 농촌의 수천년 간 지속되어 온 생활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 통신기술의 보급 특히, 4G 및 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에 따라 농촌의 업무, 생활, 교류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 허베이- 산동통신

산동성,  
4G 모바일망을  
통한  
스마트  
농촌의 조성



## 허베이- 산동통신

산동성,  
4G 모바일망을  
통한  
스마트  
농촌의 조성

### ■ 스마트 폰을 활용한 비료·종자의 구매, 농업기술자문활동

- 모바일 인프라의 구축이 농촌지역의 생활 방식에 가져온 변화 중 중요한 부분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등 각종 농업 관련 제품의 구매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 일례로, 모바일망을 통한 농사용품의 대량 공동 구매를 통해 농사 관련 경비 지출을 감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령 옌타이(烟台)시의 한 사과농장의 경우, 그 동안 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용품의 양보다 많은 양의 농약을 구입해 왔었으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손바닥 위의 농업 자금(掌上农资)’을 활용해, 해당 농약이 필요한 인근 농가와의 공동 구매를 통해 해당 경비 지출을 절약할 수 있었다.
- 또한, 농업 고속인터넷망을 통해 원격으로 개별 농가에 대한 농업기술 자문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농업생산방식에서 파종, 비료, 물대기, 농약 투여량 등은 전적으로 농민의 감이나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동통신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대부분의 농가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한편, 농촌지역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 문제에 대한 해소도 가능해졌는데, 스마트폰을 통해 기층 행정단위인 ‘가도판사처(街道办事处) 위생실(보건소)’의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 '손바닥 위의 농업자금(掌上农资)' 어플리케이션

## ■ '인터넷+' 가 가져온 농촌의 교역 방식의 변화 :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 '인터넷+' 기술의 발전 및 보급으로 농산물의 거래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 허베이- 산둥통신

산둥성,  
4G 모바일망을  
통한  
스마트  
농촌의 조성

## 허베이- 산둥통신

산둥성,  
4G 모바일망을  
통한  
스마트  
농촌의 조성

4G 모바일 망이 산둥성 전체 농촌에 보급되면서, 개별 농가와 농산물 소비자 간의 직접적 연결이 보다 용이해지고 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손바닥 농업자금(掌上农资)’은 알리바바(阿里巴巴), 징둥(京东) 등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등과 협력해서, 옌타이의 사과, 복숭아 등의 특산품을 인터넷판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02개의 기층 농업합작사, 12개의 직속기업단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쑤보시(淄博市) 보산진(博山镇) 상와첸촌(上瓦泉村)은 매 농가의 지표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유기농 딸기, 황도, 땅콩 등을 전성(全省), 전국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사과, 복숭아, 자두, 산야, 포도, 블루베리, 대추 등의 작물을 주변 사현(市县)에서 집하해 판매하고 있다.
- 한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손바닥 농업자금(掌上农资)’은 농산품거래, 가족병원원격진료, 적당한 비료량 측정 등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 ■ 농업경영 및 보건위생 관리, 치안관리 방면에서의 변화

- 쑤보시(淄博市) 보산진(博山镇)은 남보산, 북보산, 귀좡(郭庄) 등의 3개 향진이 합병된 지역으로서 총 150여km<sup>2</sup>의 면적으로 37개의 행정촌을 관할하고 있다. 2014년 8월 보산진에서 최초로 전자형 사무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고, 모든 행정촌의 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하게 되면서, 행정 구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업무가 가능해졌다.
- 또한, 보산진(博山镇) 정부에서 ‘푸른하늘 경계병(蓝天卫士)’이라는 산림 방화감독 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했는데, 매 5-10분 마다 현장을 감독할 수 있어서 24시간 산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 한편, 옌타이(烟台)시의 라이저우(莱州)는 각급 향진 정부와 협력하여, ‘핑안향촌(平安乡村)’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각 마을에

설치된 CCTV의 촬영영상을, 관할 파출소로 전송하여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각 급 파출소에서의 정시출동률을 99%까지 향상시켰고, 야간범죄발생률을 64%까지 감소시키는 등 농촌지역 치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 **산동성이 농촌의 각급 기층 단위 지역에까지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 망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생산의 향상, 주민소득의 향상,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농촌환경보호 체계 강화 등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 ※ 참고자료

1. 2015. 7. 15. 河北新闻网. “河北省到2017年建成100个左右省级现代农业园区”
2. 2015. 7. 23. 山东省人民政府办公厅 “关于印发2015年推进见证房管结合转变政府职能工作方案的通知”
3. 2015. 9. 15. 北京日报. “河北省将建还京津十佳休闲农业园”
4. 2015. 9. 24. “山东移动4G + 打造“智慧乡村”, 山东农业网
5. 2015. 9. 25. 中国网山东. “临沂市农广校到蒙阴指导新型职业农民培育工作”
6. 2015. 9. 29. , 中工网. “山东培训本土新型职业农民”
7. 2015. 09. 29. “河北省与中国农大联手打造‘中国农业硅谷’”, 中国农业新闻网
8. 2015. 9. 29. 大众网, “乐陵市农业生产逐步实现 规模化, 科技化, 品质化”

**허베이-  
산동통신**

산동성,  
4G 모바일망을  
통한  
스마트  
농촌의 조성

# 제1회 한중3농포럼개최

- 지방정부 차원의 3농정책협력 방안 모색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 ◎ 제1회 한중 3농포럼 개최 - 한중지방정부 차원에서의 3농 협력 방안 모색

- 지난 9월 14일(월), 충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과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원,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대표단,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지방정부차원의 3농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 1회 한중 3농포럼이 개최되었다. 한편, 이번 학술 포럼은 충남연구원 ·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과의 학술교류협력협약서 체결식과 함께 진행되었다.

- 본격적인 학술 포럼에 앞서,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평젠창(彭建强) 부원장,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주위(朱宇) 원장간의 3자간 교류협력협약서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향후, 3개 기관이 매년 학술 세미나와 현장 답사, 공동연구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림 1〉 충남연구원, 하북성·흑룡강성 사회과학원 간 교류협약체결식

- 이어 진행된, 학술세미나에서는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조영재 박사가 '충남의 3농혁신정책과 핵심과제',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탕빙위안 박사가 '허베이성 낙농업 발전현황과 지원정책',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청야오

忠清中国  
论坛

제 1 회  
한중3농포럼  
-지방차원의  
3농정책  
협력방안

### 박사가 '헤이룽장성 3농문제연구'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 조영재 박사는 한국과 충남의 농촌과 농업 문제에 대해 고령화, 인구 공동화 등의 위기 상황보다는 정보화, 도농복합화, 여가생활 수요 증대에 따른 첨단농업, 휴양형 농업 등 기회요인 측면에서 현재 농촌이 직면한 위기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익적·사회적 농어업 실현, 도농상생형의 농어촌 공동체 건설, 체계적 인력 육성과 맞춤형 복지를 통한 참여형 농정 거버넌스의 구축 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탕빙위안 연구원은 과거 멜라민 분유 파동 등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중국과 허베이성의 낙농업 현황에 대해 설명한 뒤, 집중형 사육방식을 통한 규모화 경영, 사료 절소 품종개량, 개별농가와 유가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사육농가와 수익분배구조 개선 산업구조의 개선과 더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허베이성 정부와 산하 각 지방정부차원에서 보조금 정책 현황 등에 대해 소개했다.
- 또한,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청야오 연구원은 농촌경제 중심의 헤이룽장성의 경제성장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농업자원이용 부족 및 자연재해의 문제, 농촌생활오염에 따른 생태환경의 악화 문제, 채소 및 곡물 위주의 농업경제구조에 따른 농산품의 저부가가치 문제, 농촌토지 유전문제, 농민의 농업경영 및 농업기술 측면에서의 자질 부족 문제, 열악한 농촌의 거주환경 문제 등을 현재 헤이룽장성의 농촌이 당면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탄소형 친환경 농업생산 방식을 지향하고, 농촌토지사용권의 재산권화, 농촌거주환경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고, 양식재배 위주의 농업생산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림 2> 한중3농포럼 회의 모습

- 이어진 토론에서는 충청남도,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각 지역의 3농 문제해결을 위한 각 연구기관들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충청남도의 ‘농업의 6차산업화’,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용’등의 이점을 활용하고, 허베이성 및 헤이룽성이 지닌 규모와 경영, 농촌합작사 등의 경험과 교훈을 교류하고 공동연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매년 3개 연구원이 교대로 ‘한중3농포럼’을 개최하고, 현지 답사활동 및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년(2016년) ‘한중3농포럼’을 허베이성 사회과학원이 스자좡(石家庄)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한편, 충남연구원 홍원표 미래연구팀장은 10월 12일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이 하얼빈 시에서 개최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중몽러 경제 회랑 및 헤이룽장성 경제벨트고위급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과 헤이룽장성의 일대일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忠清中国  
论坛

제 1 회  
한중3농포럼  
-지방차원의  
3농정책  
협력방안





<그림 3> 한중3농포럼 단체 사진

◎ 10월 제 5차 ‘충청중국포럼’은 10월 27일(화)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박사의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중국 운남성 쿤밍이공대학의 리홍보 교수를 초청하여 ‘중국 신형도시화와 3농문제’에 대한 강연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http://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발간물에 수록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과 외부 필진이 정리, 해석한 것으로서, 충남연구원 및 충남도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의사항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yookwang1234@cni.re.kr](mailto:yookwang1234@cni.re.kr), 041-840-1175)